

2018학년도 주요 변경사항

Issue 1 | 수시모집으로 정원의 78.5% 선발

- 수시 선발 비중 약간 증가 : 전년도 76.7%에서 78.5%로 1.8%(89명) 증가
- 수시모집만 실시하는 모집단위 : 인류학과, 언론정보학과, 통계학과, 지구환경과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육학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윤리교육과, 수의예과, 자유전공학부, 치의학과, 미술대학/음악대학 전 모집단위
※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시 정시(수능100%)에서 선발

Issue 2 | 지역균형선발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부담 완화

- 전년도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변경사항은 없지만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에 대한 부담감이 완화되어 지역균형선발전형 실질 경쟁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

Issue 3 | 정시모집 일반전형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변경

-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로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영역별 반영비율이 국어33.3%, 수학40%, 탐구26.7%로 변경
- 영어는 2등급부터 0.5점씩 차등 감점함

Issue 4 | 정시모집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반영 방법 변경

- 한국사 : 3등급 이내 감점 없음, 4등급부터 0.4점씩 차등 감점(2017학년도와 동일)
- 제2외국어/한문 : 2등급 이내 감점 없음, 3등급부터 0.5점씩 차등 감점(감점 폭 조정, 2017학년도는 1점씩 감점)

| 모집인원 및 경쟁률 |

시기	전형 유형	2017학년도					2018학년도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명	모집인원					
			인문	자연	의치예	예체능		인문	자연	의치예	예체능		
수시	교과	지역균형선발	279	400	40	-	지역균형선발	279	-	403 (▲3)	45 (▲5)	-	-
	종합	일반전형	560	790	75	6	일반전형	560	-	807 (▲17)	105 (▲30)	6	(0)
정시	수능	일반전형	314	368	25	-	일반전형	281 (▽33)	352 (▽16)	30(▲5)	-	-	-

주1) 2017학년도 인원은 입학전형안내 기준, 2018학년도 인원은 입학전형 주요사항 기준임

주2)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미술대학은 모집인원에 미포함

☞ 모집인원 자세히 보기

서울대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의 틀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모집단위별 인원에서도 2017학년도와 거의 차이가 없다. 수시 일반전형은 인원이 약간 증가하였고 정시에서는 인원이 감소하였지만, 수시 일반전형에서 늘어난 인원만큼 정시에서 인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의예과의 경우는 인원 변동 폭이 큰 편이다. 전년도 95명에서 135명으로 40명이 증가하였고, 전형별로는 지역균형선발과 정시에서 각각 5명씩, 수시 일반전형에서는 무려 30명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17학년도까지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할 계획이었던 원자핵공학과, 수학교육과는 2018학년도에는 정시에서 각각 4명, 7명을 선발한다.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인원	경쟁률	인원	인원	경쟁률	인원	계획인원	최종인원	경쟁률	계획인원
인문 대학	인문계열광역	56	3.95	56	-	-	-	46	49	3.27	46
	국어국문학과	-	-	-	15	7.40	15	-	-	-	-
	중어중문학과	-	-	-	12	4.83	12	-	-	-	-
	영어영문학과	-	-	-	15	7.07	15	-	-	-	-
	불어불문학과	-	-	-	10	4.40	10	-	-	-	-
	독어독문학과	-	-	-	10	5.20	10	-	-	-	-
	노어노문학과	-	-	-	10	4.80	10	-	-	-	-
	서어서문학과	-	-	-	10	5.80	10	-	-	-	-
	언어학과	-	-	-	10	6.80	10	-	-	-	-
	아시아언어문명학부	-	-	-	10	9.80	10	-	-	-	-
	국사학과	-	-	-	12	5.83	12	-	-	-	-
	동양사학과	-	-	-	10	7.70	10	-	-	-	-
	서양사학과	-	-	-	10	6.00	10	-	-	-	-
	고고미술사학과	-	-	-	10	5.40	10	-	-	-	-
	철학과	-	-	-	12	9.67	12	-	-	-	-
종교학과	-	-	-	10	6.40	10	-	-	-	-	
미학과	-	-	-	10	7.50	10	-	-	-	-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부	17	4.76	17	41	7.37	41	16	16	3.06	16
	경제학부	35	2.69	35	69	3.87	69	50	51	3.12	50
	사회학과	7	6.71	7	10	17.40	10	10	10	3.40	10
	인류학과	7	3.00	7	13	8.92	13	-	2	11.50	-
	심리학과	7	3.86	7	8	14.50	8	9	9	4.44	9
	지리학과	7	3.57	7	9	8.89	9	8	8	3.75	8
	사회복지학과	7	4.00	7	-	-	-	13	13	4.08	13
	언론정보학과	7	5.57	7	14	8.14	14	-	-	-	-
경영대학	27	2.78	27	40	4.85	50	68	68	3.43	58	
농업생명 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11	5.55	11	10	11.50	19	21	21	4.10	12
사범 대학	교육학과	-	-	-	12	15.08	13	-	-	-	-
	국어교육과	5	10.00	5	10	9.60	10	10	10	3.90	10
	영어교육과	5	7.80	5	10	7.50	12	10	10	3.30	8
	독어교육과	5	4.80	5	10	4.20	10	-	-	-	-
	불어교육과	5	3.00	5	10	4.70	10	-	-	-	-
	사회교육과	6	8.50	6	-	-	6	12	12	6.42	6
	역사교육과	6	4.83	6	-	-	6	12	12	3.83	6
	지리교육과	6	4.17	6	-	-	-	12	13	3.69	12
윤리교육과	6	8.50	6	12	7.42	12	-	1	11.00	-	
생활과학 대학	소비자아동학부	14	2.86	14	16	9.00	16	17	19	4.68	17
자유전공학부	33	4.09	33	90	7.41	90	-	3	8.67	-	
합계	279	4.22	279	560	7.10	560	314	327	3.78	281	

- 자연계열

대학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인원	경쟁률	인원	인원	경쟁률	인원	계획인원	최종인원	경쟁률	계획인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11	2.18	11	17	6.24	18	7	9	3.56	6	
	통계학과	7	2.43	7	17	5.35	17	-	-	-	-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10	3.70	10	26	5.46	26	7	9	3.11	7
		천문학전공	-	-	-	7	5.71	7	4	4	4.00	4
	화학부	10	4.00	10	25	6.24	25	8	13	3.69	8	
	생명과학부	16	3.88	16	32	8.34	32	10	18	3.56	10	
	지구환경과학부	11	1.73	11	25	4.44	25	-	7	3.29	-	
간호대학		21	1.52	21	27	5.52	33	15	33	4.73	10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11	1.18	11	30	4.60	30	14	22	4.14	14	
	기계항공공학부	기계공학전공	29	2.66	29	56	4.68	56	29	33	2.76	29
		우주항공공학전공	10	1.70	10	19	5.00	19	9	12	3.42	9
	재료공학부	22	3.14	22	44	4.75	44	22	26	3.35	22	
	전기·정보공학부	34	2.53	34	83	4.27	84	39	52	3.33	39	
	컴퓨터공학부	12	3.75	12	29	8.31	29	14	15	3.07	14	
	화학생물공학부	19	3.58	19	47	5.40	47	22	29	4.52	22	
	건축학과	12	1.75	12	29	4.79	29	10	18	2.89	10	
	산업공학과	7	2.86	7	15	8.53	13	10	14	3.21	12	
	에너지자원공학과	7	2.29	7	18	5.33	18	-	4	9.00	-	
	원자핵공학과	10	1.70	10	22	5.64	18	-	9	4.67	4	
	조선해양공학과	9	2.00	9	26	4.69	26	11	16	3.63	11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15	1.40	15	22	6.36	29	22	35	3.83	14
산림과학부		10	1.60	10	20	5.10	24	13	20	6.35	9	
식품·동물생명공학부		10	2.90	10	16	9.00	20	15	25	3.32	11	
응용생물화학부		10	3.30	13	17	10.35	19	12	18	4.11	8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10	1.10	10	14	6.00	17	13	22	6.14	10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0	4.10	10	16	11.44	17	10	14	3.50	10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8	3.50	8	18	6.39	12	-	3	5.67	7	
	물리교육과	6	1.50	6	7	8.00	7	8	13	2.08	8	
	화학교육과	6	2.67	6	7	10.57	7	8	11	4.82	8	
	생물교육과	6	2.50	6	7	10.43	7	8	12	4.25	8	
	지구과학교육과	6	2.00	6	7	6.29	7	8	13	2.38	8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10	1.30	10	10	6.60	10	10	18	5.06	10	
	의류학과	10	0.90	10	10	7.50	10	10	13	5.23	10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5	1.73	15	25	6.48	25	-	10	7.90	-	
의과대학	의예과	25	5.16	30	45	10.09	75	25	25	3.48	30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5	2.20	15	30	5.63	30	-	7	7.00	-	
합계		440	2.59	448	865	6.17	912	393	602	4.01	382	

- 예체능 계열

대학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반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			일반전형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인원	경쟁률	인원	인원	경쟁률	인원	계획인원	최종인원	경쟁률	계획인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실기미포함)	-	-	-	6	81.61	6	-	-	-	-
합계		-	-	-	6	81.61	6	-	-	-	-

주) 수시 일반전형 2017학년도 디자인학부(실기미포함) 경쟁률은 실기포함 및 실기미포함 합산 경쟁률임

3 입시전략연구소 대입컨설팅센터

☞ 경쟁률 자세히 보기

2017학년도 수시모집 전체 전형의 경쟁률을 보면 2016학년도 7.46 대 1에서 2017학년도 7.47 대 1로 소폭 상승했다.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각각 9.34 대 1, 3.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 지원자는 1만 5,613명으로 2016학년도 1만 5,320명 보다 293명 증가해서 2016학년도 9.08대 1에서 경쟁률이 약간 높아졌다. 반면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2,364명이 지원해 2016학년도와 지원자 수가 동일했지만, 2017학년도 일부 모집단위 신설로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2016학년도 3.47대 1에 비해 경쟁률은 약간 떨어졌다.

하지만 음악대학, 미술대학 인원을 제외한 인문, 자연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수시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인문계 지원 인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모집 정원도 증가하면서 경쟁률은 하락했다. 학과별로 살펴보면 의류학과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한 것이 눈에 띄며 2015학년도에 물리교육과와 지구과학교육과가 미달이 된 이래 2년 만의 미달이 발생했다. 또 2018학년도에는 수시 일반전형 의예과 인원이 30명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정시모집의 경우 2017학년도 최종 경쟁률은 4.12 대 1로 2016학년도 3.74 대 1보다 상승했다. 4.12 대 1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이며 인문, 자연 경쟁률 모두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인문의 경우는 한국사가 전체 필수과목으로 변경되면서 경쟁률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되었지만 자연계의 경우는 과탐Ⅱ과목의 선택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경쟁률이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률 상승의 첫 번째 요인은 2016학년도 수능의 물Ⅱ, 생Ⅱ, 지Ⅱ의 난이도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과탐Ⅱ선택 학생의 백분위가 불리하게 나와서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과탐Ⅱ선택자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경쟁자들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을 할 때 오히려 소신 지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